

韓國企業家精神과 그 歷史的 背景

趙

璣

濬

高麗大學校教授

企業家の 精神的 姿勢는 政治的 社會的 및 經濟的 環境과 깊은 關聯을 가지면서 形成된다. 한 나라의 企業家는 그 나라의 近代化의 歷史的 環境속에서 여러가지 모습을 갖고 나타나다가 一定한 環境이 오래 持續되면 이에 따라 그 나라의 企業家の 精神的 姿勢를 어느程度 固定化하고 만다.

오늘날 恒常 問題의 對象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企業家の 精神的 姿勢——正常的인 企業活動에서 利潤을 創出하려는 努力보다는 官權과 結托하여 一獲千金을 꿈꾸는 精神, 國民의 犧牲위에서 또는 國家經濟를 破局에 몰라넣으면서도 自己 肥大를 爲하여서는 外勢에도 阿附追從하는 精神은 우리나라 近代化의 歷史的 過程에서 비쳐진 結果이며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政治的 社會的 및 經濟的 環境은 이러한 精神的 姿勢를 더욱 深化시키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近代的 企業家는 어떠한 歷史的 環境속에서 發生成長하여 今日의 精神的 姿勢를 갖게 되었던 것인가,

(1) 最初의 近代企業家——官僚 및 貴族出身의 企業家市民階級の 成長이 充分치 못하여 近代企業을 스스로 이르지 못하거나 또는 外國으로부터 近代技術을 받아 드릴 만한 市民層을 갖지 못한 環境下에서는 近代意識에 눈뜬 政府官僚나 或은 貴族階級中에서 近代技術導入의 先驅的 役割을 擔當하는 경우가 많다. 阿片戰爭以後의 淸國의 경우 및 明治革命 以後의 日本의 경우는 모두 그러한 例에 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江華條約에 依한 開港以來 一九〇五年까지의 時期에

는 주로 官僚 및 貴族出身의 企業家가 多數發生하였으며 이들이 韓國近代化의 先驅的인 役割을 擔當하고 있었다.

開港後 日本帝國主義의 政治的 攻勢와 資本浸透에 直面한 韓國社會에서는 近代企業을 받아 드릴만한 市民階級이 形成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政府官僚 或은 貴族層에서 新文化의 導入의 急先務를 認識하는 者가 나타나 이들이 近代工業의 創立을 推進하여 왔던 것이다. 官僚 및 貴族中에는 일찍이 西歐文化에 接觸할 機會를 갖었고 近代化의 必要性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若干의 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李容翹은 李朝末期의 政府의 要職에 있는 官吏로서 일찍이 祖國의 近代化를 切實히 느끼고 西歐技術을 導入하여 多數의 政府直屬工場을 設立했다. 宮內府所屬의 絹織技術傳習所, 沙器製造所, 銃器製作所等 近代工場은 그의 發議로 建設된 것이다.

朴琪宗은 官吏出身으로서 官職을 辭退한 後 大韓鐵道會社를 組織하고 鐵道等의 開拓에 힘썼다.

李載完, 閔丙奭, 閔丙徽, 金宗漢等은 貴族出身으로서 或은 西歐에 留學하고 或은 西歐消息을 傳해 듣고, 日本資本進出에 對抗하는 近代金融機關을 創立했다.

이들 初期企業家들은 利潤追求보다도 民族主義·愛國心이 企業創立의 直接的 動機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企業運營의 合理的精神이 缺如되어 있었다. 이 初期企業家는 大體로 一九〇五年 以來 沒落過程을 밟았다. 保護條約 締結以後 日本의 韓國支配가 確立되고 政治的 및 大資本의 壓力에 눌려 計算法과 合理的 精神을 갖지 못한 이들 愛國的企業家는 活動能力을 喪失하고 만 것이다.

2. 地主出身의 企業家

官僚 및 貴族出身의 企業家가 沒落한 後 1920年頃부터 韓國社會에서 새로운 系譜를 가진 近代企業家가 誕生하였다. 地主出身의 企業家와 庶民

出身의 企業家가 그러하다.

1920年頃부터 日本의 對韓政策은 變更되어 韓國에 있어서의 政治的, 社會的 環境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從來의 武斷彈壓政策이 多少緩和되고 韓國人의 企業活動을 抑制하고 있던 會社令이 廢止됨으로써 民族企業家의 活動의 機會가 마련된 것이다.

이새로운 環境에서 誕生한 企業의 一群은 舊地主의 系譜를 갖는 사람들이었다. 地主의 子弟들은 近代教育을 받고 外國에서 見聞을 넓힐 機會를 갖었고, 또 스스로 資本을 마련 할수 있는 財産의 所有者들이었다. 그들은 傳來의 土地財産의 一部를 放賣하여 資本을 마련하고 近代企業을 創立했다.

이들 地主出身의 新進企業家도 初期의 官僚 및 貴族出身의 企業家와 한가지로 民族主義意識이 強하였고 여기서도 民族主義思想이 近代企業을 創立하게 된 主된 動機였던 것이다. 그러나 初期企業家와 다른 點은 그들은 이미 近代教育을 통하여 資本主義思想의 訓練을 받았고 利潤追求에 對한 銳敏한 感覺과 近代企業에 對한 經營能力을 가추고 있었다는 事實이다.

그들은 日人資本의 壓力을 比較的 덜 받는 衣料生産部門 또는 食料品生産部門에서 活動의 分野를 開拓하여, 나갔다.

그러나 이들 企業家는 本來 地主였고 또 近代企業을 經營하고 있으면서도 財産의 一部 오히려 大部分의 財産을 土地所有의 形態로 保有하고 있음으로써 主要한 所得의 源泉은 如前히 小作地代에 依存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그들은 近代企業家인 同時에 半封建的인 小作地代의 取得者였던 것이다. 이와같은 經濟的 基盤은 그들의 精神的인 姿勢를 保守的인 性格에 억매어 놓았다. 그들의 企業態度는 冒險을 시러하고 過度하게 慎重하였다.

이들 企業家는 企業의 動機를 民族主義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民族의

近代化課業에도 努力을 잊지 않았다. 그들은 利潤의 一部를 敎育機關 言論機關等 文化事業에 投下함으로써 民族啓蒙運動에 이바지하여 왔다.

그러나 이들 地主出身의 企業家は 財産保有의 安全辨을 土地所有에 두고 主要한 所得源泉을 半封建的인 小作地代에 依存하고 있었기 때문에 土地改革과 같은 社會秩序의 改革에 對해서는 否定的이었다. 여기에 地主出身의 企業家の 二律背反的인 精神的 姿勢가 形成되었고 民族近代化過程에 있어서의 不徹底한 改革者의 烙印을 받게 한 原因이 있다 하겠다.

3. 庶民出身의 企業家

1920年 以來 進出한 다른 一群의 企業家로서 庶民出身의 企業家를 들 수 있다.

庶民出身의 企業家에도 明白히 區別되는 두개의 타입이 있다.

하나는 傳統的인 商家, 傳統的인 手工業者의 家系를 받은 企業家이며 다른 하나는 連綿한 職業的인 家系의 出身은 아니고 商業的 분위기가 充滿된 地方小都市에서 生長한 自立精神이 強한 下層階級出身의 企業家이다. 여기서는 前者를 A型의 企業家 後者를 B型의 企業家라 稱하고 兩者의 企業家로서의 精神的 姿勢를 考察하기로 한다.

A型의 企業家, 傳來의 家業에 執着하고 있는 至極히 保守的인 企業家이다. 傳統的民俗產業과 結付되어 있는 小賣商人, 高利貸商人, 또는 傳統的· 生産業을 繼承한 手工業的 企業家들은 이 타입에 屬한다. 手工業的 生産에 從事하고 있는 企業家の 例로서는 韓紙製造業者, 鑰器製造業者, 도자기 製造業者, 冠帽製造業者 等等 民族固有의 風俗과 密接한 關係를 갖는 生産業者들이다. 그들은 設備의 一部를 機械化하나 企業種類 및 組織을 改革할려 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家業을 이어온 地方을 離脫하지 않고 거기에 固着하여 生計를 維持하여 나간다. 좀 말트가 말하는 手工業的 企業家에 屬하는 群像들이다. 이러한 企業家は 進取性

이 없고 社會의 近代化와 더불어 沒落의 運命에 處해 있는 企業家들이 었다. 그들이 日常支配下에서도 微微하나마 그 殘命을 維持할 수 있는 것은 日帝下에서는 韓國의 社會改革이 不徹底했기 때문이다.

B型的 企業家 B型的 企業家는 A型的 企業家와 對照的이며 이들은 自立精神이 強하고 進取性을 갖고 環境에 對한 適應性이 強한 사람들이 었다. 그들은 銳敏하게 機會를 포착하여 利潤을 追求할 줄 아는 近代企業家精神을 具有하고 있었다. 그들은 冒險을 不辭하고 利潤追求를 爲하여서는 外國資本과도 손쉽게 合作할 수 있었다.

이들 타입의 企業家들은 1920年 以來의 새로운 環境에 발마추어 재빨리 日人商人과 結托하여 國內商業 및 對外貿易에 從事했고 交通運輸業, 水産業 鑛山業等을 經營하여 財産을 蓄積했다 日本의 植民地的 經濟機構下에서는 이러한 近代企業精神에 充滿한 企業家들은 日帝政策에 順應하고 그 뒤를 따르면서 利潤에 分占하는 道理밖에 없었던 것이다. 日帝下의 民族企業家の 阿附精神은 이렇게하여 培養되어 왔다. 가장 徹底하게 利潤追求의 精神을 具有한 民族企業家가 反民族的이라는 烙印을 받게된 原因은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日帝支配下에서 活動의 分野를 開拓할 수 있는 大多數의 企業家는 이 타입에 屬하는 사람들이 었다. 이와 같은 타입의 企業家精神은 解放後 오늘날에도 우리나라 企業家の 精神的 姿勢에 많은 影響을 주고 있다.

오늘날의 企業家가 正常的 企業運營에서 利潤을 創出해 내기 보다는 官權과 結托하여 利潤을 追求하려는 精神, 社會正義를 짓밟고라도 自己 肥大만을 피하는 精神, 國民經濟를 破綻에 모라넣더라도 自己 利益을 爲해서는 外國資本과 손쉽게 結托할 수 있는 精神等 이것은 日本支配下의 遺産이며 오늘날 韓國의 政治的 經濟的 機構 및 運營의 缺陷은 이를 더욱 助長하고 있다고 하겠다.